

Maison

2011 NOVEMBER
WWW.MAISONKOREA.COM

메종 **marie cla**

JYJ 재종의 스타일 있는 집



숨은 공간의 쓸쓸한 활용법
알랭 드 보통을 만나다
17명의 셰프가 밝히는 자신만의 소울 푸드
2011 <메종 & 오브제> 리포트
도자기 축제로 떠나는 날

질풍주의의 매력

Eclectic Style

Special
COLLECTORS

NOW

trend



- 1 에밀리 파이퍼의 패브릭 조각 '파리의 뉴욕'
- 2 '빅 리프'의 컨셉스케치
- 3,5,6 마틸리 크라세가 노무스의 협업에 의한 '빅 리프' 이그
- 4 프랜시스 모렐의 반지치 패브릭을 이용한 사슴 모양 아트워크
- 7 언신 프로덕츠(Unson Products)에서 소개한 바위 느낌의 쿠션

Sculptural Fabric

이제까지 패브릭은 가구 집기나 커버링을 위한 좋은 소재로 사용되어 왔으나, 소재 자체가 일방적이 때문에 무게감 있는 작업을 선보이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 단점을 극복하고 입체적인 패브릭 아트를 선보인 작가들의 유연한 사고양식에 박수와 감명을 일러는 스페이스로 호산나 올란다는 희귀하고 깊은 갖가지 패턴의 반지치 패브릭을 패치워크에 만든 프랜시스 모렐의 사슴 모양의 아트워크 '보헤미안 그린시'를 전시해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프랑스 디자이너 마틸리 크라세는 최근 노무스(Nomus)와 협업해 손으로 매듭을 지은 울 소재의 러그 '빅 리프'를 발표했다. 매듭을 벽에 걸었을 때 하나의 설치 작업 같은 느낌에서 주는 이 러그는 뉴질랜드산 울과 히말라야산 울을 섞은 것으로 내실에서 생산되는데 3개월을 기다려야 받을 수 있고, 12개만 특별 생산한다. 프랑스 작가 에밀리 파이퍼(Emile Falgout)는 숲을 채워 만든 패브릭 집과 빌딩 구조물을 연결해 '파리 뉴욕' 설치 작업을 완성했다. 여행담과 자유의 여신상이 담긴 패브릭 조각이 이 얼마나 시샘스러울까. 그녀는 최근 초도의 차시분외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꽃과 패브릭 조각의 유기적인 인스톨레이션을 보여준 바 있다. 해마다 정수준

